

이어지는
삶,
변지는
가능성

Questioning



23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경은·화정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은 항상 불안했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마음 속에 돌덩이처럼 머물며 목구멍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들
불안, 공포, 소외감, 외로움, 아픔, 답답함, 무기력함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뒤에야 올라오는 것들을
어디에 풀어 놓고 이야기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살아남기 위해 해엄쳐야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휩쓸고 있는 건 나의 삶뿐이 아닐 텐데
누구도 그 휩쓸림이 낳은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건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도피하는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적마다 허우적대며 외롭게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말하고 싶어

이런 흘러감은 싫다고, 이런 당연한 삶은 싫다고
나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들어 줄 사람이 이곳에는 없냐고
다른 길은 없냐고

맞추어야 하는 것들과 따라잡아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지 말하지 못했어
욕망되는 것과 인정받는 것 외에
무엇으로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매기는 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내가 가진 가능성들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



외침이 울림을 만들어내고
각자의 방에서 꺼지던 한숨들이 언어를 갖고
나도, 나도, 나도 입을 열 때
차갑고 매끄럽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고
하나, 둘, 셋,
반짝이는 것들이 돌아날 거야
균열을 타고 흐르며 번져나가는 것은
누구도 기획하지 않은
스스로 피어나는 춤들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던 땅에
이렇게 수많은 물음표들이 고개를 내밀고
규범과 각본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몸을 움직이며 변화한다
무엇이 가능할까, 무엇을 해볼까
함께하는 질문에는 힘이 있어
와글와글, 북작북작
머리를 맞대고 가능성을 자아내

그렇게 자아낸 빛을 따라
생동하며 살아나는 삶들이
뒤흔드는 몸짓들이
이제 갇힌 방에서 벗어나
춤추자



- 04 후보소개
- 06 총여학생회론 -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
- 08 기조 -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 10 22대 총여학생회 평가

퀘스처닝의 공약 살펴보기

- 14 공약 한 눈에 보기
- 16 Questioning 공약 정리
Questioning 공약 자세히 보기
- 18 ❶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 21 ❷ 길을 벗어나 내딛는 한 발,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 24 ❸ 성별규범을 깨고 관계 재구성하기
- 26 ❹ 일상 속에서 힘을 키우는 Action! 反 성폭력
- 32 ❺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이터
- 33 ❻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재구성하기
- 42 공약 한 눈에 보기

퀘스처닝의 이야기들

- 44 여성주의가 교육권을 놓지 않으려는 까닭에 대하여
- 46 불안을 떨기 위한 폭력, 호모토피아는 있어선 안된다
- 48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
- 51 일상의 공기 속, 장애와 비장애중심성을 성찰하면서
- 54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 57 캄캄한 방, 홀로 있을 모든 꾸구리들에게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Questioning

가온

몸이 흐르는
자리

총여학생회 정후보

경은 (교육학과 3학년)

- 2005년 채식 시작
- 2006년 연세대 인문계열 입학
교육반 교육학회 <돌움> 활동
대인대학 <물뿌리 사회학교> 참여
학내에서 제3세계 어린이 교육시설지원을 위한
<작은파이집> 운영
대학생 환경운동을 위한 <에코캠퍼스>팀 활동
- 2007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 개발활동 <선재수련> 첫 번째 참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진학
생태공동체에서 생활(~2010)
- 2008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 개발활동 <선재수련> 두 번째 참여
- 2009년 북한주민 대량아사방지를 위한
식량지원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
- 2010년 22대 총여학생회 에코페미니즘팀 활동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기획단 활동
4대강 공사 반대 낙동강 도보순례
<잉어들의 낙동강 공습기> 참여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기획단 활동

누군가의 고통 위에 쌓은 삶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몸부림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때 채식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대학 진학 후에는 대학입시의 참혹함이 싫어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뚜렷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제3세계와 자연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삶에 대해 고민하다가 대안을 찾기 위해 무소유 생태공동체에서의 생활을 2년 반 동안 경험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총여학생회에서 만났고 여성주의 언어를 통해 내가 살아내고 싶었던 삶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여성주의는 내가 느껴왔던 예민한 감성들을 지지해 주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다. 마음속에 터질 듯 쌓여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세상으로 나아가 흐른다.

총여학생회 부후보

화 정 (법학과 4학년)

- 2007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연세대 공법학회 활동
연세대 법과대학 2반 농활대 여성주제, 여성농민반 진행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반 07대표
- 2008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반 회장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여성주의 학교 <주말 아롱아롱 세미나> 참여
- 2009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13기 노수석 열사 추모제 기획단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활동
5.18 추모기획단
명지대 비정규직 부당해고 저지를 위한 지역대책위 연대
- 2010년 노동이 평등한 세상 노동이 살맛나는 세상 <살맛> 활동
연세대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돌리는 작은 교실> 한글교사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참여

화정

내 안의 수천만
모소리에
귀 기울이기



좀 더 날카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의 모순을 깨부수겠다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내가 또 다른 범주를 만들거나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없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닌 또 다른 억압을 생산해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틀 속에 갇혀 규정될 수 없음에도 강제되는 규범들은 무수한 상처를 남게 한다.



여성주의의 언어는 얼마나 내가 단일한 구도로 모든 관계들을 파악하고 많은 존재들을 타자화해왔는지 깨닫게 했다. 이 깨달음은 나와 내가 살아온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모두를 뒤흔들어 버렸다. 이제 다시 나의 삶을 쌓아갈 차례이다.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

학 교에서 학생은 좀처럼 발언권을 갖기 힘들다. 학생의 생활을 만드는 것은 학생 자신이 아니다. 학생은 자신이 낼 돈에 대해 협상할 수도 없고, 듣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은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학교에 하지 못하며,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도 찾기 어렵다. 학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삶이 어떠한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이리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다.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는 삶은 그 이야기에서 쉽게 소외된다. 과반 공동체나 동아리 내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불편하며, 교실에서 교수의 어떤 발언이 자신을 상처받게 하는지, 학내의 어떤 장소가 두렵거나 접근 불가능한지 이야기하기에 이 학교는 너무나 거대하다. 그래서 학생의 목소리를 학교에 내기 위해 구성된 장치가 바로 학생회이다. 그러나 학생회가 반영하는 목소리는 어떤 학생의 목소리인가? 정말 2만 연세인은 모두 아카라카와 연고전을 원하는

가? 모두가 취업 외에는 다른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걸까? 토익시험을 보고 싶지 않고 대기업의 인턴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학교에서 어떤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학내에서 가시화되는 푸르른 연세대학생의 삶이 모든 학생이 원하는 삶은 아니다. 그러나 비가시화된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의제라는 장치에서 걸러진다. 학생의 목소리를 모아 힘을 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회는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목소리만을 반영할 뿐, 그 안에서도 또다시 약자가 된 사람들은 여전히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렇게 사라진 목소리를 드러내며 사라짐을 만드는 권력구조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여성주의이다.

총여학생회는 학내에서 여성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어떤 공식적인 장소에서도 논의되지 않는 사소한 경험들에서 억압과 권력의 관계를 포착해내고 공론화하기 위함이다. 성폭력적인 발언과 게입이 난무하는 술자리, 농담으로 통하는 여성비하적 발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겨야 하는 월경의 경험 등 가부장적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권력적 억압들은 주로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삭제해 왔다. 그저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재미있기 위해서라고, 이 정도쯤 괜찮지 않냐고 말하며 용인되는 것들에서 상처 입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총여학생회가 탄생했고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한 외침으로 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사실 권력구조 속에서의 억압은 여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누군가가 생태적인 삶을 원할 때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 놓고 돌아오는 MT는 그에게 어떤 경험일까? 채식하는 학생에게 학내의 무수한 식당들은 어떤 장소일까?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남학생에게 나이권력이 절대적인 과반 남성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 자연스러운 듯 했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여성주의이고, 그 누군가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총여학생회는 성차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차별과 억압

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이 비장애중심성과 이성애중심성에 대한 공론화였으며 에코페미니즘에 기반한 활동이었다. 편안해 보이던 일상에 파문을 내는 드러냄과 문제제기는 수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력, 이 학교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을 흔들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구가 총여학생회이다.

만약 총여학생회가 그저 여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구라면 한계는 명확하다.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한다면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억압들을 재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때문에 총여학생회는 그러한 방식을 경계하며 비판해 왔다. 권력관계에 의해 주변화된 사람들의 경험이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고 그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것으로 취급되는 이 구조에서 작은 목소리들에 힘을 실어 주고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해 왔고 앞으로 해 나갈 일이다. 총여학생회가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여학생들이 아니다. 권력구조 속에서 약자로서 존재하는 여학생들이며, 나아가 성별과 관계없이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철폐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끊이지 않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는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총여학생회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대항해 싸워 나갈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억압과 폭력을 만들어내는 모든 구조에 대항할 것이다. 그리고 성별이 더 이상 억압이 아니게 될 때, 남성 이 갖고 있는 가부장적 권력이 희미해지고 학내에서 더 이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기쁘게 벗어 던질 것이다.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다단한 층의 규범들이 나를 틀 속으로 밀어 넣는다. 갖가지 규범에 들어맞지 않는 삶은 매순간 비난받고 차별받고 있음에도 모두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말한다. 이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인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개인이 틀에 맞게 변화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된다. 예컨대, 젠더규범이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않는 자는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힌 채 ‘정상’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받는다. 또한 장애를 가진 몸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적응’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는 평등하다고 말하는 매순간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차별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희석된다.

‘자유’와 ‘평등’ 속에서 가려지고 잘려나간 삶들

정상/비정상, 중심/주변의 구도로 짜여진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위치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이들의 삶은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에 의해 잘려나가고 사라진다. 연세대학교 안의 삶들을 돌아보자.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 성차별은 사라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대학의 분위기에서 여학생은 명예남성이 되거나 매력적인 연애 대상이 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평등’한 학교에는 없는 것처럼 사라진다. 이제 학내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 성별화된 사회의 평가기준으로 인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유능하고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움과 상냥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중의 압박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되어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순간 열등감에 괴로워해야만 한다. 생활은 소비와 폐기의 반복으로 지치고 병들어 가는데 언론과 매체의 실 새 없는 광고는 오히려 더 많은 소비를 욕망하게 하고 지친 삶들을 풍요로움으로 포장해버린다. 그 과정에서 파괴된 자연과 착취 받는 노동자, 농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무수한 상처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만든 거대한 중심의 구조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각자의 삶들은 교차하고 경합하며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억압받고, 그 억압의 지점들은 서로 맞닿아 있다. 하지만 권력의 교묘한 작동은 이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상처들을 개인이 감당할 문제로 만들면서 고립시킨다. 결국 이 삶들은 좀처럼 이어지지 못한 채 부유한다.

일상을 뒤흔드는 여성주의

여성주의는 이러한 소외와 고립을 만들어내는 권력관계들을 파헤치고 균열을 내기 위한 언어를 만들면서 일상을 뒤흔들고 변화를 모색했다. 여성주의의 힘은 '그래야만 한다'는 수많은 규범과 권력관계들을 깨뜨리고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왔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경험과 없는 것처럼 감추어야 했던 월경의 경험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성별이분법에 따라 오직 두 가지의 성만 상정하고 특정한 역할과 위치를 부여하는 젠더 규범에 질문을 던졌다. 휠체어를 타고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계단식 강의실이 얼마나 비장애중심적인 공간인지를 폭로하고, 효율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자연과 그 자연과 함께 짓밟힌 가난한 살들을 내보이는 것 역시 여성주의의 힘이었다. 이처럼 주변화, 비가시화 되었던 살들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는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다. 누군가를 억압했던 권력을 해체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일 뿐이다.

여성주의로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23대 총여학생회 선본(Questioning)은 이제 이 소중한 언어들이 더 많은 세상의 면면과 마주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삶의 영역과 조우하려 한다. 이러한 마주침에서 각자 고립되어 있었던 삶/관계들은 부딪히고 깨지며 이어진다. 이제까지 가려져 있었던 삶과 잘라내어졌던 관계를 드러내고 이어내는 과정이 각자에게 동일할 수는 없기에, 하나의 완벽한 대안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안들 속에서 누가 배제되는가를 고민하며 더듬어갈 수 있을 때만 이 과정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절대적인 경계 속에서 밀려나는 삶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주의적 관계맺음의 출발이다!

깜깜한 밤길 홀로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의 두려움과 집으로 들어간 후 밀려오는 우울함을 없는 채 하지 않고 칸칸의 방에서 꺼내어 발화함으로써 움츠러들지 않는 힘을 나눠받을 수 있음을 몸소 느껴보자. 무수한 살들을 가리고 오직 화폐의 지불로 이루어져 왔던 생활에 역행하여 효율과 이윤의 논리에서 벗어난 색다른 생산의 가능성을 실현해보자.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지워내며 정상성의 각본 안에서 꾸려지는 삶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느리더라도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삶,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지 않는 그런 삶을 직접 꾸려보자. 이로써 흩어져 있던 개개인의 고립된 삶은 재구성되고 여성주의의 언어는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 이 바라본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기조로 보는 22대 총여학생회

22대 총여학생회는 “일상의 관계와 경험을 여성주의로 재구성하다”라는 기조¹⁾로 활동을 하였다. ‘여성주의’라는 기조에서 드러나듯이 성별권력구조에 문제제기하는 총여학생회 존재 의의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권력과 폭력에 문제제기 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기조는 성별권력관계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소수성을 드러내고,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꾸려가는 기초가 되었다. 이는 총여학생회의 목적과 의의를 권력관계 속의 소수자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성폭력, ‘탈이성애중심주의’, ‘몸비꾸기’, ‘에코페미니즘운동’, ‘여학생교육권’, ‘여성주의 문화’ 등은 일상의 권력관계를 드러내겠다는 기조에서 나온 22대 총여학생회의 공약들이다.

일상의 권력관계를 드러내었는가

22대 총여학생회(이하 22대)의 반성폭력운동은 학내의 성폭력적 문화를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일상의 가부장적 권력을 드러낸다는 내용이었다. 성폭력을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문제로 조명하여, 보이지 않았던 일상의 권력관계를 드러낸다는 기조를 공약으로 잘 이어갔다고 생각한다. 22대는 여러 자료집과 자보, 문화제로 반성폭력 담론화를 했다. 오티 새터기간에는 ‘여연자연(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대 자치단위 연대)’ 내에서 함께 발행한 <굿바이 거짓평화>라는 제목의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을 다양한 이야기들로 풀어썼다. 사람들이 새로이 들어와 자치단위들이 공동체 문화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에, 여연자연 활동을 통해 기존의 학번-성별-나이로 짜여진 권력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3월초의 <반성폭력 주간>을 통해 이야기되지 않았던, 성폭력 각본에 맞지 않는 성폭력들을 드러내고 이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시화 되지 않은 여러 성폭력을 담론화 시킴에 따라, 학내의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내고 사람들이 반성폭력 감수성을 갖게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성폭력적 상황을 마주했을 때, 구체적으로 대응해나갈 방법과 언어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야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은 22대의 반성폭력의 의미를 이어서 가져가며, 거기에 더해 학내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1) 47대 총학생회 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 중 기조 설명글 참고한 내용.

2) 정식 공약의 명칭은 '성폭력 각본을 깨는 반성폭력 운동'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나 관계를 말하다' '간하지 않는 몸, 긍정하여 피워올리다' '일상의 작고 힘 있는 한 걸음, 에코페미니즘' '여학생 교육권을 말하다' '여성주의 프리존! 무지갯빛 목소리' 이나 이 지면에서는 임의로 줄여서 '반성폭력' '탈이성애중심주의' '플라꾸기' '에코페미니즘' '여학생교육권' '여성주의문화' 로 표시하기로 한다.

학내의 관계맺음을 새로이 재구성 했는가

수 있는 힘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 학내의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일상 속 성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리플렛을 만들어서, 학내 구성원들이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일상에서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대의 '탈이성애중심주의' 공약은 이성애중심주의와 젠더규범(성역할규범)이 상호 연관되어 차별과 배제를 낳는 지점을 문제제기 하는 내용이었다. 22대는 겨울방학의 '탈이성애중심주의'로 세미나와 5월의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퀴어의 움직이는 성)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과 관계를 드러내는 담론화 작업을 하였다. 이성애주의가 성역할 규범을 양산하고 사람을 성별이라는 틀에 가두는 각본을 만들어내는 지점들을 드러냄으로써, 학내에 성별권력관계에 묻혀진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었다는 점에서 활동 의미가 있었다. 탈이성애중심주의 의제는 성에 따른 규범과 차별의 문제로, 성별권력관계에서 '여성'이라는 소수자성을 고민하는 여학생회로서 웅당 고민으로 가져가야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Questioning>은 탈이성애중심주의의 문제의식을 활동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젠더규범과 이성애주의를 풀어갈 수 있는 작업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관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계에 대한 사연들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내는 '영기는 라디오'로 일상의 규범들을 깨나가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한 세미나나 문화제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의 관계를 여성주의적으로 바꾸어가며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22대 총여학생회는 선본시절 생협에 관련하여 공동공약을 제안했을 정도로, 생협과 에코페미니즘 공약이 22대의 중요한 과제였다. 총여학생회가 참여하여 진행한 '생태장터'의 키워드인 '생태' '유기농' '로컬푸드' '지역농민'으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사회의 이윤창출과 개발에 착취당하고 억압받았던 생태계, 지역농, 여성의 관계를 적극 드러내었다. 상품화와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 기치 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먹고, 치우고, 생활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들을 고민함으로써, 일상 속에 보이지 않았던 착취와 폭력을 문제시 하고 다양한 실천으로 바꾸어 가려했다. 22대가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생협이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적 가치를 풀고자, 생협을 알리고 운영하는 일에도 적극 결합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Questioning>은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적 가치를 학내 교육환경에 대한 고민으로 적극 가져가려 한다. 학생회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이러한 가치를 다양한 활동으로 만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를 테면 일회용품이 아닌 자기집 사용하기 문화를 위해 생협과 함께하는 텀블러 기념품 사업을 제안하거나, 엠터를 생태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에코엠터 키트를 빌려주는 방안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이윤추구논리로 재단된 비생태적인 학내

3) 47대 총학생회 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 중 '여학생 교육권' 공약 설명을 참고한 내용

문화를 <틈새 공작소>라는 공약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적으로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관계를 쌓아가는 '재능나누기'를 추진하거나 '프리마켓'을 통해 정돈 물건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착취나 단절된 관계로 구성되지 않는 대안적인 관계를 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학생 교육권'은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스스로 교육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로서, 그동안 교육권의 기준이 된 남성-비장애인-이성애자 중심성에 문제제기 하며 학내 공간을 바꾸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 22대는 여학생 휴게실이나 가로등, 샤워실 설치같은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학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실현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일년간 이렇다 할 담론화나 실천이 없어서 아쉬웠다. 또한 '여학생 교육권'으로 이야기 되지 않는 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 중심적 기준에 억압된 다른 가치들이 잘 이야기 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은 교육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적인 교육권은 단순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공간의 구체적인 관계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함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생태적이고, 여학생, 비이성애자,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학내 공간에 문제제기하고, 공간의 관계를 바꾸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것이다.

이슈중심의 장에서, 삶 속에서 면면이 만나는 장으로

22대는 일상의 권력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반성폭력과 탈이성애중심주의, 에코페미니즘 등을 구체적인 활동의 주제로 삼고, 담론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간을 바꾸어갈 의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치성을 드러내고 학내 구성원들을 설득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의 삶속에서 여성주의의 정치를 만나고 느끼며 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은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틈새 공작소'와 같은 공약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삶을 돌아보며 바꾸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가려고 한다. 자취하는 삶과 주거라는 일상에서 여성주의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고민을 같이하고자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를 만들려 한다. 또한 도시락모임이나 수작업공작을 통해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보는 삶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꾸릴 것이다. 이렇게 삶속에서 생활들이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적인 삶으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로 구성된 규범들을 깨뜨려 나가는 방향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위의 내용 중 22대 총여학생회의 공약설명과 활동내용은 22대 총여학생회에서 발간한 책자 <영무조개 네트워크 1, 2호>와 웹사이트, 47대 총학생회 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 그리고 22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활동보고를 참고하여 내용을 밝혔다.



이어지는
삶,
변화는
가능성

Questioning

공약 살펴보기





길을 벗어나 내딛는 한 발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 서문에서 자취하는 여학생들 모여라! 일상의 뒷면에서 다시 그려내는 여학생들의 삶!
- '서문'에 사는 학생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 때 여학생들이 파악하는 공간을 재조명하고 자취하는 여학생들의 생존을 드러내며, 다른 삶을 만들어가는 관계맺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1 '서문'에서 강연회와 영화제, 소모임 기획
- 2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팀 활동
(서문지도 발간, 영상 제작, 사진전 등)

성별규범을 깨고 관계 재구성하기

- '남자라면 이래야 한다, 여자라면 저래야 한다'는 성별규범과 성역할규범이 각자의 관제와 몸을 어떻게 얽매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바꾸어나가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 '연애', '결혼', '가족' 등의 삶의 각본에 치이는 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이성애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 1 성별규범, 이성연애각본,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등을 허무는 탈이성애중심주의 세미나
- 2 몸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몸 바꾸기 프로젝트 (힐링힐링 캠프, 눈맞추기 세미나 등)
- 3 문화제

- 잊혀지고 지워진 다른 가치들과 관계들을 찾아 여성주의적으로 자본주의의 틈새 만들기!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학내 구성원들이 각자의 속도로 만들고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졸업 후의 삶과 일에 대한 고민들을 녹여내며 각자에게 의미 깊은 다른 삶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시도하겠습니다.

● <복작 복작 틈새 공작소> 팀

- 1 팀 활동 (재능나누기, 교환과외, 수작업 공작, 도시락 모임 등)
- 2 팀 내 세미나 (여성노동, 에코페미니즘, 대안화폐, 자본주의, 생협 등)
- 3 프리마켓 열기

● 생태 여행 떠나기

- 1 여름방학 기간 '생태 여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함께 생태 여행 기획
- 2 일주일가량 느릿느릿 떠돌며 여행, 갯벌, 사대강, 지리산 등 잊혀진 공간들을 찾아가 작은 마을들을 거점으로 지역민들과 활동단체를 만나기
- 3 여행에서 만난 풍경과 생물은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료집 발간, 사진전 등의 후속 작업 진행

● 스펙 역행하는 인턴

- 1 여름방학 기간 '스펙 역행하는 인턴' 참여자 모집 및 세미나
- 2 참여자들이 재구성해 본 일을 실제로 실험해볼 수 있는 활동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막달레나공동체, 장애여성 공감 등)와 연계하여 '스펙 역행하는 인턴' 진행
- 3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위의 활동이 가진 의미를 풀어낼 수 있는 후속작업 진행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재구성하기

- 수업, 강의실, 공동체, 생협을 비롯하여 학교 공간과 문화를 비틀어내기
-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는 교육권으로서 목소리 내기

● 여학생 교육권

◇ 수업

- 1 여성주의 강의평가 @ 오프라인 진행
- 2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 개설 요구

◇ 몸

- 1 여성주의 의료생협(준)과 같이 여성의 건강과 삶을 고민하는 단체와 함께 전시, 진로부스 등의 활동
- 2 대안월경대 키트 판매 및 OT/새터, 농활에 생리대 배부

◇ 공동체

- 1 누구랑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아싸 도시락 모임"
- 2 아키라카, 연고제 싫어서 내가 차린 난장판

● 생협

- 1 생협학생조합원으로 목소리내기, 생협 이사회, 생협 학생식당자문위원회 결함
- 2 학생식당 내 싸고도 건강한 채식식단 개시, 샐러드+과일 바 설치
- 3 생협 매점에서 만나는 녹색가게
- 4 텀블러 제작, 에코옴티 키트 대여 등을 통해 일회용품 없는 학생자치활동 만들기

● 장애학생

- 1 장애학생 수업권을 돌아보는 간담회

일상 속에서 힘을 키우는 Action! 反성폭력

- 여전한 성폭력 각본! 일상에서 마주치는 성폭력을 드러내고 통쾌하게 깨트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성폭력 사건과 마주하는 사건 해결 주체들의 힘을 키우고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겠습니다.
-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치유를 지지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학대간부수련회, 48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반성폭력 강연 진행
- 2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지치단위연대 (여연자연) 내 반성폭력 워크숍 및 자료집 발간 제안
- 3 교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여부 강의계획서 내 표기 의무화
- 4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리플렛> 개정 및 배포
- 5 <일상 속 성폭력 대처를 위한 상세하고 다정다감한 매뉴얼 : 레드북> 발간 및 배포
- 6 학내 언론사에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 제안
- 7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담론화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이터

함께 모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더 많은 꺼리들과 만남들 만들기

- 1 매체 발행 및 블로그, 홍보데스크, 티파티 등의 활동을 병행
- 2 상시적으로 문화공연 소개하고 티켓나눔 및 후기 공유
- 3 일상이 만나는 곳, 엉키는 라디오
- 4 여성주의적인 공동체를 고민하는 과/반 공동체, 학회, 동아리등을 위한 테이크아웃 커리집
- 5 총여학생회 온라인 공간, 홈페이지/블로그/웹진 등을 통하여 상시적 홍보, 피드백, FAQ 등
- 6 일상을 뒤집는 여성주의 세미나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1



자취든, 기숙사든, 고시원이든, 하숙이든, 당신은 혹은 당신 주위의 누군가는 왜 집을 나와서 살기를 택했나요? 집 혹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무수한 고민들을 불러일으키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도록 합니다. 이 와중에 '여학생'이라는 건 더 어렵지요. 학교에는 집을 나와서 사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서문이라는 마을에 밀집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문'이라는 공간에 얹히고설킨 이러한 일상의 뒷면을 폭로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상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서문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각각이 하나의 점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좁은 방 안에서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떠돌다가 아침이 되면 부스스한 얼굴로 학교에 나왔다 들어가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이 점들이 그물망으로, 네트워크로 이어지면 무수한 가능성들이 번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문 안에서 벌어지는 삶을 읽어내어 공감대를 만들고, 끌어당길 수 있는 장으로서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를 고민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나 따로, 미래를 고민하는 나 따로, 생활에 치이는 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열되어버린 나를 그려모아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일상을 그려내고, 여성주의적인 관계맺음, 네트워킹, 공동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생태계라는 키워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빚어나가요.

<Questioning>에서는 서문에서 영화제와 강연회를 시작으로 서문의 이야기를 끌어올리겠습니다

2월 경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는 서문대야동 시기를 맞아 자취하는 여학생들의 일상 및 여학생들이 파악하는 공간을 다루고 이를 강연회와 영화제의 기획을 통해 풀어내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집에 가는 길의 성폭력의 공포 나누기일 수도 있고, 멋진 언니들이 따로 또 같이 사는 얘기가 나오는 영화 일수도 있어요. 이러한 강연과 영화를 서문 사는 이들과 함께 보는 것을 시작으로 서문의 이야기를 불러들이겠습니다.

낮의 서문과 밤의 서문은 참 다릅니다. 낮에는 햇살아래 자못 평온해보이던 골목들이 밤이 되면 숨 한번 안 몰아쉬고 내달려야만 할 것 같은 공포스러운 관문으로 탈바꿈 합니다. 집을 구할 때도 집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은 있는지, 치안센터는 있는지, 아랫집 윗집 옆집 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현관문이나 창문이 주위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안불안 따질 것도 많습니다. 어쩔사리 자취를 시작하고 짐을 옮기고 나서도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꼭 쥐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갑니다. 방문을 열면서도 안에 누가 있지는 않을까 서둘러 불을 켜고 문을 꼭 걸어 잠급니다. 배달음식 한번 시켜먹을라 해도 망설여지고요, 이처럼 서문이라는 공간에 얹힌 일상의 성폭력을 비롯하여 감춰지고 숨겨져 있던 여학생들의 생존을 드러내겠습니다.

서문에 사는 여학생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겠습니다

영화제와 강연회를 통해 서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서문 사는 이들이 하나 둘 얼굴을 익히면 서문 앞 카페, 슈퍼든 어디든 구체적인 공간에서 일상을 매개로 여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모여서 차도 마시고, 책 읽은 소감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짜증나는 세상에 욕도 하고, 장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의 일상으로 서로를 초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만난 이들 중에서 의지가 있는 이들을 주축으로 〈서문 네트워크 팀〉을 꾸리겠습니다. 여학생들이 파악하는 공간을 담아낸 서문지도를 만들어 뿌리고, 서문을 담아낸 영상이나 사진 등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서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자취메이트알선소, 밀반찬제조공장, 생협공동구매등대, 자전거배달서비스, 쓰던물건나눔 등 자취하는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촌에서 대학생으로서 산다는 것은 소비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교재를 사고, 음식을 사먹고, 옷을 사고, 커피를 마시는 등 소비하지 않으면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또한 각자의 생활을 각자가 책임지면서 살아갈 때 사게 되는 물건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고립될 때 시장 경제가 팔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지고 팔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 한다는 것은 이처럼 끊임없이 소비하는 삶, 사회가 만들어놓은 삶을 벗어나 창조하고 공유하는 삶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문, 더 나아가 신촌이라는 공간에 발 딛고 서 있는 연세대학교가 얼마나 속도와 경쟁, 소비를 창출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지금의 생존을 묵살했는지에 대해 시원하게 털어내 봅시다. 이러한 묵로전 속에서 서문이라는 공간에서 창조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해 봅시다.

길을 벗어나 내딛는 한 발, 2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우리는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매합니다. 이때 고려하는 사항은 눈앞에 있는 상품과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뿐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매김 속에서 상품은 그 상품이 얼마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그 값이 적절한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 밖의 것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잊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고, 상품 진열대에 오기까지 연관된 사람들과 자연은 상품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자연이 사라지는 모습은 가부장제가 여성과 비이성애자와 장애인들, 소수자의 목소리들을 자위 버리는 모습과 겹쳐집니다. 제3세계 여성과 아이들의 노동, 생산과정에서 파괴되는 자연과 그 자연을 기반으로 하던 가난한 삶들은 저임금과 착취 속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자본주의가 설정한 방식의 가치매김은 가부장적 질서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활용합니다.

〈Questioning〉에서는 자본주의 가치매김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진 다른 관계들을 찾아보려합니다.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사는 경제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 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매김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던 여성과 생태, 노동에 대해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나고 복작복작하게 벌여보려고 합니다.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복작복작 틈새 공작소는 말 그대로 복작 복작 자본주의의 틈새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은 '얼마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잘 생산해내느냐?'로 평가받습니다. 더 많은 화폐를 끌어 모을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절하 되지요,

저희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틈새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자본주의, 생태, 노동, 여성, 다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가까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그걸 프리마켓에서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교환과외를 하는 등의 일을 펼치면서 자본주의에서의 교환관계와는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 복작 복작 틈새 공작소 팀을 만들겠습니다.

뜻이 있는 연세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모여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2. 틈새공작소 팀 내에서 서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재능나누기, 교환과외>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신의 손으로 시간을 들여 직접 만드는 <수작업 공작>

점심시간에 같이 도시락을 먹는 '도시락 모임' 과 같은 <생활 모임>

을 가지면서 일상 속에서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 팀 내에서 여성노동, 에코페미니즘, 대안화폐, 자본주의, 생협 등의 키워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틈새공작소 팀이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이렇게 쌓여진 것들을 바탕으로 프리마켓을 열겠습니다.

틈새공작소 팀이 활동을 하면 틈새공작소 팀이 만든 물건들이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 그리고 만들어진 관계들을 바탕으로 프리마켓을 열겠습니다. 틈새공작소 팀이 만들어낸 생산물들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정해주는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정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여행

생태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 서열화의 체계 속에서 삭제되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살아 있는 생태계가 아니라 단순한 매립지로 간주되던 갯벌에 가볼 수도 있고, 토건경제의 논리로 진행되어가는 4대강 공사지역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을 구경하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만나는 여행이 될 거예요!

1. 생태 여행의 의미를 풀어내고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2. 여행계획을 짜겠습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매김 속에서 잊혀진 공간들을 돌아볼 수 있고, 느릿느릿 떠돌면서 정해진 장소의 작은 마을들을 거점으로 지역의 사람들과 활동 단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행 계획을 짜겠습니다. 단순히 여행지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물들을 포함한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올 수 있는 여행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여행을 다녀온 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풍경들, 느낀 점들을 가지고 자료집 발간이나 사진전 등의 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펙을 역행하는 인턴

인턴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갑니다. 자본주의적 가치서열화 아래에서 일은 돈을 벌어드리는 일에만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은 일로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의 한정된 개념에 맞춰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품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턴은 그 스펙의 소중한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턴만이 전부일까요? 인턴으로 다른 일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돈 중심의 시장경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인턴, 성적소수자에 대한 무시와 편견에서 거부장적인 위계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에서의 인턴은 없을까요? 저희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에서는 이런 인턴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1. 활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등의 이들 단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거부장성에 도전하는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에 피해 대한 상담,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행복과 삶과 권리를 지지하는 <막달레나공동체>와 같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잠식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거부장적인 위계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음을 던지는 활동단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에서 돈을 벌기 위한 노동으로만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의미, 가치, 상상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2. 활동 단체에 가기 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삶 얘기, 왜 이것을 하고 싶은지 등을 나누고 고민하는 세미나를 하고, 인턴이 끝난 후에는 함께 모여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별규범을 깨고 관계 재구성하기 3



유치원 아이들이 병아리색 옷을 입고 소풍을 나왔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스타킹과 치마를, 남자아이들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머리가 길고 남자아이들은 머리가 짧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역할은 요구되며 학습됩니다. 옷차림과 머리모양뿐이 아닙니다. 날씬한 몸, 높고 가는 목소리, 조곤조곤한 말하기 방식, 섬세함, 감성적임,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여성'이라서 가지는 특성들인가요? 아니면 '여성'으로 분류되기에 요구되고 기대되는 특성들인가요? 우리는 모두 여/남으로 나뉘어 성별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것을 수행할 것을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할렘한 옷을 입고 뛰어다니고 심고 힘이 세어지고 싶더라도 '여성' 이고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러한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나의 몸이라고 하지만 몸의 움직임들은 성별규범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별규범은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만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이가 자라서 여자/남자 청소년이 되고 이성에게 성애적인 관심을 갖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한 생애각본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이고 당연한 행동인 것처럼 교과서와 미디어는 얘기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며, 이성애자라는 것이 곧 생애각본과 일치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본에서 조금만 벗어난 삶을 살아가도 그 사람은 수많은 질문들에 부딪히고, 왜 그러는지 설명하라는 세상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규범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건 아직도 까마득한 일이에요. 예로 들어 누군가가 비혼을 선택했을 때, 온갖 편견 넘치는 시선들과 함께 너 그러다 병이라도 들면 누구한테 간호 받을래, 늙어서도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니 등등 설득하려는 말들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되겠죠.

세상이 성별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부대낌을 느끼며 애써 쫓아가고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의 무엇인가가 그러한 성별규범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여성주의의 자유로운 언어는 보편적인 삶을 설정하고 정상/비

정상을 나누는 가부장제의 권력을 산산이 깨어나갑니다. 성별규범에 갇힌 나를 바꾸어 나가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부장적 각본 역시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던 것들에 균열이 생기고 규범이 깨질 때 새로운 가능성들은 피어납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문화제를 통해 그 다채로운 가능성들을 풀어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1. 성별규범 허무는 세미나

이 규범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는 기제로서의 '연애'와, 성역할규범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며 처음으로 학습되는 장소인 '가족'의 탄생과 그 역사를 공부하며 그것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성이면 이래야 해 남성이면 이래야 해, 여성과 남성은 본능적으로 서로 끌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계는 연애가 아니면 우정으로 분류해야 해, 그러한 이성애중심적 서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관계들이 부자연스럽게 뒤덮히고 오해와 각색을 겪어 왔는지 생각해 보는 탈이성애중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별규범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장으로서의 연애각본을 수집해 재해석해 보고, 나의 경험 말하기, 미디어 비평 등을 통해 성별의 벽을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보는 세계는 지금까지의 세계와 얼마나 다른지 입을 열어 외치는 시간도 가져 봐요.

2.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관계맺음을 고민하는 몸 바꾸기 프로젝트

우선 규범에 맞추어진 옷부터 같이입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나의 몸의 경험은 성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구획되어 있었어요. 세미나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팀을 꾸려 구획에서 벗어나 몸을 깨우는 몸 바꾸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몸 바꾸기란 성별규범이 어떻게 몸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자신이 경험한 몸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와 규범에서 벗어난 몸으로 소통하며 관계맺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까지를 뜻합니다. 한 예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남성에게 보호받는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몸에 각인시켜 왔던 각본을 깨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팔다리를 쪽쪽 뽀여보기도 하고 땀이 흘쩍 나도록 달려보기도 하고, 타인의 공격의사를 예민하게 감지해 그에 대응하기 위해 급소를 타격하는 훈련이나 자신의 몸을 지키는 자세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몸에 새겨진 이분법적 성별의 규범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여성주의 문화제

그 동안의 세미나와 프로젝트를 통해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풀어내는 문화제를 만들어 봐요. 여성주의가 규범의 억압에 대한 폭로와 규범을 벗어난 상상력에 공감하고 힘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팀이 구성되어 내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와 프로젝트와는 달리,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문화제는 학내에서 담론을 생성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에서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펼쳐지면서 그것들을 학내의 다른 구성원들과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나눌 수 있는 판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피워내 봅시다.



일상속에서 힘을 키우는

Action

反 성폭력 4



올 한해도 많은 성폭력 이슈들로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학교도 그 수많은 이슈들 사이에서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 이슈들이 진행되는 과정과 얘기되는 방식들이 여전히 가해자중심적, 행위중심적인 것을 볼 때 반성폭력 운동은 아직 유효하며 반성폭력 운동 하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내에서 이뤄진 10년 가까이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 2000년도에 학칙으로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반성폭력 운동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성폭력을 대하는데 있어 더욱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칙이 세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과 관련된 핵심단어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성세한 감수성으로 자신의 불편한 경험을 드러내고 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1. 여전히 성폭력 각본

그렇지만 이렇게 높아진 성인지적 감수성 속에서도 여전히 일상 속에서 겪는 성폭력을 드러내는 말은 잘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성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성폭력 각본'입니다. 각본의 내용은 '면식이 없는 정신이상 남성 가해자가 성추동을 억제하지 못해 악하고 '순결'한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성기삽입을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이 각본에 들어맞으면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만 이 각본과 다르면 성폭력으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성폭력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각본에 들어맞지 않는 다른 내용의 성폭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런 것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하며 각본과 비교되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확대 간부 수련회, 중앙운영위원회 LT 내 반성폭력 강연 진행

각본에 의해 잘 보이지 않게 된 성폭력을 드러내고자 확대 간부 수련회, 중앙운영위원회 LT에서 반성폭력 강연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자리들은 겨울방학 동안 단과대, 그리고 과, 반의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OT/새터 시기가 되면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이 들어오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 환경적 성폭력, 언어 성폭력, 물리적 성폭력 등 다양한 성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속 단위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구성원들의 일상적 불편함과 성폭력 경험을 해결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을지, 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연자연 내 반성폭력 워크숍 및 자료집 발간 제안

또한 여연자연(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에 함께 연대하여 앞의 강연에서 시작된 고민들을 워크숍을 통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연자연은 단과대, 과, 반 대표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회 등 학생회가 아닌 단위, 또 개인자격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당시 함께 나눈 고민들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의 내용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강연+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할 생각이며 계획하고 있는 주차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들을 위한 사건 해결 과정 워크숍 (가제)

- 1주차 : 여성주의적으로 성폭력 바라보기
- 2주차 :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고민들 (사건 해결 과정을 공개/비공개로 진행하는 문제, 가해자나 피해/생존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관계, 진술서를 받는 방식 등)
- 3주차 : 사건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
- 4주차 : OT/새터/뒷풀이 자리에서 술자리문화, 게임, 응원과 같은 공동체 문화 고민하기

한편, 학교 안에서 오래 이야기 해왔고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언어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만 교수-학생 간 위계적 권력관계로 인해 쉽게 말할 수 없는 성폭력이 존재합니다. 성차별 발언, 인신공격 발언, 호모포비아 발언 등의 강의실 내 교수 언어 성폭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는 주로 강의를 듣는 학생의 제보/신고가 있을 때 교수에게 직접 문제제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가 사과만 할 뿐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가해 발언 이후의 조치는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신청 전에 강의가 성차별적이지 않은 환경을 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강의계획서 내 표기 의무화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수에게도 의무로 되어있으나 실질적 이수여부를 학생들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수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강의계획서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 하려고 합니다.

2.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고자 할 때

성폭력 각본과 들어맞든 들어맞지 않은 성폭력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해결 주체들 앞에 펼쳐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결 주체는 피해/생존자 당사자일수도 있고 피해/생존자가 고민을 나누는 상대일수도 있고 피해/생존자가 속해있는 단위를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폭력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해결 주체들의 감정은 복잡적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중점으로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기 시작하지요.

2-1. 사건 해결이란 뭘까?

무엇을 사건 '해결'이라고 생각할 것인가는, 무엇을 중점으로 볼 것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사건 해결 주체는 성폭력 사건을 특별히 가시화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 해결 주체는 학생회나 상담실 혹은 외부 기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건 해결 주체는 가해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작은 말하기 모임이나, 상담 등을 통해 치유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예시일뿐입니다. 사건에 따라, 사건 해결 주체의 의지에 따라 사건 해결 방향과 방법은 전략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리플렛〉 개정

몇 년간 꾸준히 OT/새터 기간에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리플렛〉이라는 리플렛이 각 단과대 과/반 대표와 동아리 대표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리플렛에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건 해결 과정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탓에 2차 가해, 공동체 분위기, 피해/생존자의 심정변화, 공론화 등 사건 해결 과정 속에서의 구체적인 고안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주체가 좀 더 직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렛의 대대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사건 해결 방향 및 방법에 따른 사례나 변수들을 담아 리플렛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성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상세하고 다정다감한 매뉴얼 : 레드북〉 발간

성폭력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로 어떤 일련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즉시에 대처 있게 대처하거나 소소한 복수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치한을 만났을 때 경찰서까지 데려가는 귀찮지만 어떻게 꿀탕을 좀 먹여주고 삶을 때인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풀어 놓을 수 있는 모임을 갖고 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상 속 성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상세하고 다정다감한 매뉴얼 : 레드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레드북〉에는 짜증나는 학내 공간 공간에 붙여놓을 수 있는 반성폭력 구호가 담긴 스티커도 넣을 수 있겠지요.

2-2. 2차 가해 방지

성폭력 사건을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도리어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2차 가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피해/생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학내 언론사에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 제안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특히 학내 언론사와 함께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학내 언론은 그 영향 범위를 생각할 때 성폭력적이지 않고 피해/생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는 여론을 형성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학내 언론사에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를 제안하고 언론사로서 성폭력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3.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오랫동안 이어진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속에서 현재 사회와 학교를 바라보면 여전히/계속해서/또다시/새롭게 반성폭력 운동을 해야 함을 느낍니다. 변화하는 성인지적 감수성과 변화하는 성폭력 양상 속에서 수많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07년도에 개정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학칙)은, 협소한 성폭력 정의와 가해자 징계조치의 불충분 등으로 인해 현실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에 역부족입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담론화

때문에 학칙 개정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1년의 시간을 들여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간의 반성폭력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합한 문제의식을 발굴하고 그 문제의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언어와 더 많은 고민들을 담아갈 수 있는 형식 등을 다각도로 타진해보고 공론화 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의 힘을 키우는 Action

反 성폭력

- 공약 ❶ 확대 간부 수련회, 중앙운영위원회 LT 내 반성폭력 강연 진행
- 공약 ❷ 여연자연 내 반성폭력 워크숍 및 자료집 발간 제안
- 공약 ❸ 교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여부 강의계획서 내 표기 의무화
- 공약 ❹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리플렛〉 개정 및 배포
- 공약 ❺ 레드북 발간 및 배포
- 공약 ❻ 학내 언론사에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 제안
- 공약 ❼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담론화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5 놀이터

일상이 지루하고 반복된다고 느끼나요? 하지만 실제로 일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울다 잠들고, 깔깔깔 뛰놀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공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상의 **‘문화’**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영역이고 여성주의로 이에 다가선다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의 눈동자에 고여 있는 표정들을 이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 **무규범 댄스**를 취보아요. **〈Questioning〉**에서 준비한 **문화공약** 들입니다.

1 매체를 발행하고 블로그, 홍보데스크, 간단한 다과와 함께하는 간담회와 같은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매체를 매개로 하여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성주의적으로 비판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더 많은 끼리들과 만남들을 만들겠습니다.

2 총여학생회 온라인 공간, 홈페이지/블로그/웹진, 메일 등을 통하여 상시적 홍보, FAQ, 피드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해 궁금한 사안을 질문하거나 제안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열어두겠습니다.

3 상시적으로 문화공연의 티켓나눔을 하고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사회의 지배서사대로 재현하는 미디어들에 지치셨다면 다른 방식의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고픈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성영화제, 환경영화제, 인권영화제 등 상시적으로 여성주의적인 영화, 전시, 공연 등을 발굴하고 티켓나눔을 통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성주의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람한 후의 후기들을 공유하여 다른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영키는 라디오〉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디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현장감 있게 일상의 소소한 관계들을 토로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테이크아웃 커리집을 만들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떻게 여성주의를 풀어낼지 고민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망설임이 있으시다면 23대 선본 〈Questioning〉에서는 과/반, 동아리방 등 각자의 공간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여성주의 주제별로 관련된 커리들을 모아 묶어둔 참고자료들을 열람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여성주의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하여 일상을 뒤엎고 바꿀 수 있는 관계맺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6 재구성하기

학교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밥을 먹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이동하고, 수업을 듣고, 어떨 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어두컴컴한 밤에 집에 가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 여기저기 놀러다니기도 하지요.

누구나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학생들의 일상' 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생활이 다 똑같은 일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삶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여학생에게 언어성폭력이 만발하는 수업은, 비이성애자에게 호모포비아가 만발하는 수업은 출석하기조차 힘든 것일 수 있고,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이동할 때, 수업을 들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벼락치기를 할 때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학생들이 솥을생으로 향할 때면 그곳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밤새 카운터를 지켜야만 하는 생협 직원들이 있지요.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보편적인 교육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애자-비장애인-남성-학생만을 상정하고 있음을, 이러한 '교육권'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덮어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3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Questioning 은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을 재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곧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Questioning 의 교육권 공약,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수업
공동체
생협
몸

수업

여성주의 강의평가 @ 오프라인

- **현황**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평가에서 성평등 항목은 단 한 개? YES/NO로 대답 가능? 주관식 답변은 NO를 택한 경우에 한해서만?
- **문제점** 강의실 언어 성폭력이나 환경적 성폭력을 세세하게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의평가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
- **방향** 실제로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실질적으로 교수와 학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강의실에서 벌어진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에 제대로 문제제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수업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젠더관점이나 우리 학교에 개설했으면 하는 수업,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싶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와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방법

1.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만의 1차 강의평가를 한다. 단과대/과·반별로 한자리에 모여서 구체적인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단과대/과·반학생회, 총여학생회가 이 자리에서 나온 평가와 요구를 정리한다.
2. 참여한 단과대/과·반에서 실시한 강의평가 자료와 요구안을 수합하여 학교 당국이 함께하는 2차 강의평가를 한다. 이 자리에는 단과대/과·반학생회, 총여학생회와 성폭력 상담실, 단과대 학장/학과장, 교수진 등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기 말 혹은 방학 중에 단과대/과·반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함께 강의평가에서 논의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 결과를 정리하여 학생들과 공유한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 개설

- **현황** 자기방어와 관련한 수업으로 호신술이 유일? 이나마도 [건강과스모츠]에 포함되는 121개의 강의 중 총 4개만 개설? 모두 2학점 규모의 수업? 방어법이나 낙법과 같은 실기로만 이루어진 커리큘럼? (2010학년도 2학기 기준)
- **문제점** 성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훈련은 단지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 한정될 수 없다.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젠더 각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동시에 여학생들이 길들여져온 몸의 역사, 소극적인 움직임이나 움츠러드는 마음에 스며든 습관을 흔들어야 한다.
- **방향**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을 2학점 체육수업이 아닌 3학점 교양수업으로 개설함으로써 실습만이 아니라 강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의 커리큘럼을 짜고 강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성폭력상담실과 총여학생회가 취지를 살려 교무처와 얘기해갈 수 있도록!

방법

1. 수업의 모델?

다른 학교에는? 순천향대학교 「여성의 몸과 자기방어」 (3학점 교양과목)
 수업 구성 : 강의 45% / 영상물 시청 및 토론 10% / 몸 훈련 실습 45%
 전반부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강사가 몸과 권력, 성별제도, 여성의 쾌락, 폭력에 대한 강의 진행
 후반부 : 태권도 사범 선생님과 함께 자기방어훈련 실습 진행

외부 단체 및 학교 여학생 부처 등의 조언을 얻어 자기방어훈련 수업의 구체적인 상을 잡는다.

2. 그간 학교에서 시행해온 자기방어훈련 관련 워크숍과 논의를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자기방어훈련 수업을 홍보하고, 수업 개설을 지지받는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3. 이를 바탕으로 교무처, 여학생센터, 성폭력상담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 2010년 여름방학에 워크숍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2010년 2학기에 정규 수업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한다.

몸

여성주의 의료생협(준)과 함께 건강한 삶 찾아가기

- **현황+문제점** 병원에 가서 돈을 내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나의 몸 경험이나 일상 생활의 느낌은 사라지고, 건강은 언제나 5분 안에 진단받고 10분 안에 약 처방받는 것으로 편 잡은 거라고?
- **방향+방법** 학교에 다니면서 건강한 삶을 꿈꾸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여성주의 의료생협(준)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1. 서문 여학생네트워크 등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 소모임이나 진료 부스 등을 통해 자신과 친구(이웃), 지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의 다채로운 방식을 모색한다.
2. 여성주의 의료 강연,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전시 등을 통해 여성의 경험과 삶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나간다.

여성주의 의료생협(준)은 어떤 곳일까?

여성주의 의료생협(준)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건강과 의료에 관련된 생활의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생협입니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하고, 비의료인을 '환자'로만 위치 짓는 현재의 의료체계에 대한 대안 모색,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휘둘려 적절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소외계층을 양산하는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이성애중심적 의료체계를 넘어 성폭력·가정폭력 생존 여성 자원과 십대 여성, 비혼 여성, 성소수자를 위한 건강 사업 등 다양한 여성주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www.unninet.net/femihealth)

대안월경대 키트 판매 및 OT/새터, 농활에 생리대 배부

- **현황+문제점** 월경은 말하기 부끄럽고 숨겨야 할 문제? 여학생만이 경험하는 특수한 문제? 일회용 생리대를 쓰지만 나날이 가격은 차츰고 질은 나빠진다고?
- **방향+방법** 여성이 자신의 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몸과 건강,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OT, 새터, 농활과 같은 자치활동에 생리대를 배부하여 월경을 공동체의 문제로 사고할 수 있도록! 천으로 만든 대안월경대 키트를 제작하고 총여학생회실에서 상시 판매함으로써 여성의 몸과 생태와의 연결 속에서 월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간담회

● **현황+문제점** 장애를 가진 학생은 연세대학교에서 이동할 때, 수업을 들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장애학생 교육복지는 교수와 학생처 직원들로 이뤄진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통해서만 몇 년에 한 번씩 평가 될 뿐이라고? 눈씻고 찾아봐도 장애학생 당사자가 학교 환경을 평가할 공식적인 제도나 기구가 없다고?

● **방향+방법** 장애학생과 학생회, 학교 당국이 함께 연세대학교에 필요한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동아리 게르니카, 장애학생 자원센터 새움터, 학생처 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여기서 잠깐! 비장애중심적 연세대학교 엿보기

새움터에 장애교육 전문인력이 없다고요?

새움터는 백양관에 설치된 장애학생 자원센터로서, 장애학생의 전반적인 교육사항을 담당하는 장소이자 장애학생들이 휴식하고 학교 자원자들과 만나는 공간이다. 2010년 현재 법학대학원 소속의 지도교수와 학생복지처 소속의 직원 1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조교 5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점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전담 직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과대의 학과교육과 새움터 업무를 병행하는 지도교수나 별도의 장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조교들이 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이 수강신청이나 건물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학교 공간의 재구성이 시급하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학생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와 정보들이 부족해서, 장애학생은 개인적 노력을 들여서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취업정보를 탐색해야 한다

대필, 녹취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현재 새움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필, 녹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필자, 녹취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학생이 아는 학생들로 메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필, 녹취자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및 대필, 녹취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속지하지 못한 상태로 대필, 녹취가 진행되기도 한다.

장애학생



공동체



아싸 도시락 모임

● **현황+문제점** 학교에 입학하고 공동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때때감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남자 선배의 연애대상이 아니면, 술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나중엔 누구도 아웃사이더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 **방향+방법** 과, 동아리에서 부대끼던 학생들이 모여서 새로운 만남을 만들 수 있는 장소! 화학조미료와 수입산 재료를 사먹느라 지친 속을 로컬푸드와 알찬 밥으로 채우는 식사

1. 정기적으로 푸른샘을 빌려서 도시락 먹을 장소를 마련한다.
2. 커다란 밥솥의 전원을 끄고 푸성귀, 김치, 밑반찬을 푸지게 펼쳐놓는다.
3. 쌀과 각자의 반찬을 들고 아싸들이 모인다.
4. 밥을 먹으며 수다 떨기. 여기서의 만남이 트위터, 카카오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조? "오늘 개봉하는 이 영화 같이 보러 가실 분?" "오늘 도시락 뭐 싸왔어요?"

아카라카, 연고제 싫어서 내가 차린 난장판

● **현황+문제점** 학생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아카라카, 연고제에선 술 먹고 응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백양로는 기업 판촉 행사장이 되어버리고, 학교 전체에 쓰레기가 버려져 미화직 노동자들이 밤새 청소해야한다고?

● **방향+방법** 축제가 다양한 학생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노동을 과중시키지 않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1. 아카라카, 연고제의 응원 문화, 술 문화가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는지 글, 사진, 그림 등으로 알린다.
2. 아카라카, 연고제에 가지 않은/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당일 프리마켓, 야외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신나게 논다.
3. 확대운영위원회나 단과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실천안을 과/동아리 학생회와 함께 마련한다.



생협

식당자문위원회, 이사회 결합

● **현황+문제점**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다. 생협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경제 조직체로서, 이윤이 아니라 삶에 바탕을 둔 공동의 생활경제영역을 구성하는 협동체이다. 생협의 조합원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운영자로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어떤 생산자와 연대할 것인지, 이익금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생협에 별도의 학생대의체제가 없는 연세대학교에서는, 그간 학생복지위원회와 학생회가 학생조합원의 대의자로 역할해왔다. 그러나 2010학년도에 학생복지위원회가 생협을 이슈화하고,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에 생협국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학생회는 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나 실천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생협조합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Questioning>은 이사회, 식당자문위원회를 통해 생협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적인 식당과 매점 운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사회 :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교원 4명, 직원 3명, 학부생 3명, 대학원생 3명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2010학년도의 경우 학부생이사는 총학생회 1인, 총여학생회 1인, 학생복지위원회 1인으로 선임되었다.

-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

생협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소집 및 논의할 안건 선정, 운영에서 생긴 잉여금의 사용 계획 등

식당자문위원회 : 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의사수렴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생협의 사업들을 벌여가기 위한 조직체이다.

- 식당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
식단 모니터링, 식재료 구매 기준 설정, 메뉴의 가격, 식당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

입학 기념으로 텀블러를, 3월엔 에코앤티 키트를

● **현황+문제점** 신입생에게 입학선물은 연세대학교 마스크트 테디베어나 기업 후원으로 확보한 최신 USB로 괜찮은 걸까? 새터, 오티 기간 무수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들, MT에서 한 박스씩 사게 되는 일회용 젓가락, 스티로폼 접시들이 생태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없나고?

● 방향+방법

1. 생협의 지원을 통해 신입생 입학 기념품을 텀블러로 제작하고, 희망하는 단과대 학생회의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생수를 사먹는 대신 텀블러로 급수대 물 마시기, 종이컵 대신 텀블러로 맥주 마시기 등의 일상적인 실천을 홍보한다.
2. MT에서 필요한 다량의 수저, 컵, 그릇의 세트를 총여학생회 차원에서 구매하여, 신청하는 과/반, 동아리에 빌려준다.

싸고도 건강한 채식식단 개시, 학교 식당에 샐러드+과일바 설치

● **현황+문제점** 학생식당 밥값은 나날이 치솟고 메뉴들엔 화학조미료만 가득해 먹을수록 허약해진다고? 식유 낭비하는 수입산 육류 대신에 지역농 생각하는 로컬푸드 푸성귀들을 맘껏 먹고싶다고?

● 방향+방법

1. 식당자문위원회를 통한 현재 학생식당 메뉴의 선호도 조사 및 식재료 원산지 검토
2. 타 학교 생협의 유기농 식당 및 채식식단 운영을 참고하여 적절한 메뉴와 가격대 설정
다른 학교 생협은? - 서울대학교는 2003년 하반기 생협학생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C메뉴(3000원짜리)로 채식식단을 도입하였다. 상지대학교는 2007년 학교차원에서 친환경식재료와 일반 식재료의 차액을 식당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로컬푸드 유기농식단을 1600원에 제공하였다.
3. 이를 바탕으로 이익협과 협의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로컬푸드 채식식단 제공,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샐러드+과일바 설치

매점에서 만나는 녹색가게

● **현황+문제점** 매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대기업들의 배를 불러주는 과자나 노트밖에 없다고? 인터넷 게시판 통해서 학기 초 오픈마켓에서만 아니라 1년 내내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싶다고? 학생 조합원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 방향+방법

여성을 초과착취하지 않은 공정무역 물품,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물품, 대안적인 생산과 유통경로를 거친 물품을 매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더불어 학생들이 만들어낸 물건들, 재활용품, 중고물품들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코너를 열 수 있도록!

다른 학교 생협은? - 서울대학교 생협학생위원회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이전 존재했던 통로에 녹색가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교재나 생활용품의 벼룩시장일 뿐 아니라 미대생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팔거나 서울대 음반레이블에서 제작한 음반들을 팔았다.

Questioning 공약 한눈에 보기

서문여학생네트워크

- 서문의 이야기를 끌어올리는 영화제, 강연회
- 서로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소모임
-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팀 활동
(서문지도 발간, 영상 제작, 사진전 등)

길을 벗어나 내딛는 한 발,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 <<틈새공작소>>팀 활동
(재능나누기, 교환과외, 수작업 공작, 프리마켓 등)
- 생태 여행 떠나기
- 스팩 여행하는 인턴

성별규범을 깨고 관계 재구성하기

- 규범 허무는 세미나
- 몸 바꾸기 프로젝트
- 문화제

일상 속에서 힘을 키우는 Action! 반성폭력

- 사건해결주체를 위한 반성폭력 워크샵
- 사건해결과정을 담은 라플렛 개정
- <일상 속 성폭력 대처를 위한 상세하고 다정다감한 매뉴얼 : 레드북> 발간
- 강의계획서에 담당교수의 반성폭력교양 이수 여부 표기 의무화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이터

- 매체 발행
- 온라인 공간, 홈페이지/블로그/웹진 등 운영
- 상시적인 문화공연 티켓 나눔
(여성영화제, 인권영화제, 콘서트, 전시 등)
- 과/반, 동아리 등을 위한 테이크아웃 여성주의 커리집
- 일상이 만나는 곳, 영키는 라디오
- 여성주의 세미나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재구성하기

수업

- 여성주의 강의평가 @ 오프라인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 개설

몸

- 여성주의 의료생활(준)과 함께 건강한 삶 찾아가기
- 대안 월경대 키트 판매 및 OT/새터, 농활에 생리대 배부

생활협동조합

- 싸고 건강한 채식식단 개시, 학교 식당에 샐러드+과일 바 설치
- 학생들이 꾸려가는 녹색 가게
- 텀블러&에코오티 키트

공동체

- 아싸 도시락 모임
- 아카라카, 연고제 싫어서 내가 차린 난장판

장애학생

-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간담회





자연스러움이라는, 당연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상을 옥죄고 있는 권력들의 홍수 앞에서,

그 물살에 나를 담그고 그에 맞게 나를 억지로 바꿔나가기보다,
그러느라 시리고 아린 마음을 혼자 다잡기보다,

그 가면을 벗기고 힘껏 바라보기를,
그 물살이 가려버린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막혀 있던 이야기들을 잇고자 합니다.

이여자는
삶,
변자는
가능성
Questioning

공약과 함께 읽으면 좋은,
Questioning의 이야기들

여성주의가 교육권을 놓지 않으려는 까닭에 대하여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다. 중도 학생들이 시험기간 배풀지 않을 “권리”를 위해 학생회는 솟을 샘 24시간 개방을 일궈냈고, 학생들이 핫이슈를 알 “권리”를 위해 일부 세련넷 유저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과 사건 정황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1848년 프랑스혁명이 시민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공화정을 수립한 이후, 권리라는 단어는 성별,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줄 열쇠로 부상했다. 특히 “학생”이나 “시민”과 같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이름과 병렬될 때, 권리라는 단어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다. “학생”과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곧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 열매를 모두가 고르게 나눠먹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권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곧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시민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왕정체제를 빌미로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는 가운데, 평민은 세금을 강탈당할 때만 국가에 출현할 수 있었다. 무대 뒤에 숨어있던 제3신분이 스스로에게 ‘시민’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몸으로 행한 노동의 결과물을 되찾아온 것이다. 학생이라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당국의 예결산 내역이나 건축 조감도에 학생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을 때야, 학생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방기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자치공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학생’들의 공동체생활을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학생들 스스로 교육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교육권’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권리는 언제나 없었던 자들의 권리일 때만 정당하다.

이를 망각하고 아무데나 '교육권'이라는 이름표를 들이댈 때, 패악이 발생한다. 2만 연세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카운터를 보는 생협 노동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밤새워 카운터에 서있어야 한다. 수많은 온라인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상노출의 위협과 끊임없이 상기되는 기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오용은 학교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세정신의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될 권리를 가진 자는 상당히 한정적이다. 학교는 로스쿨을 유지하고 송도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해 몇 억씩 쏟아 붓긴 해도,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숙기사를 고용하거나, 성폭력상담실에 정규직 상담원을 한 명 더 고용하기 위해서라면 일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글로벌 연세 프로젝트는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가 고려하는 교육환경에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의 수업환경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모두의 권리가 공평하게 상충하고 있다는 가정, 민주적 권리란 결국 다수결로 실현된다는 가정은 애초에 틀렸다. 이것은 보편적 권리라는 단어가 기실 특수한 지배집단에 보시해왔음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강의평가에서 언어성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이나 동성애자를 희화화하는 발표에 분노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지워진다. 농활대원 모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왔다는 생필품에서 생리를 하는 학생의 몸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일쑤고, 일상적으로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연애대상으로 절하하는 과/반에서 무수한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이 불가하기 일쑤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라는 연세대학교 교정은 계단식 강의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 허다하고, 미화직 노동자와 생협 노동자의 식사와 휴식을 위한 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수한 해외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여 더 넓은 세계를 제공하겠다는 송도캠퍼스는 갯벌에 살고 있는 무수한 조개, 물고기, 철새를 매립하고 그에 기대어 살던 맨손어민들의 삶도 역시 매립해버렸다. …… 오랫동안 연세대학교나 2만 연세인의 이름으로 주창되어왔던 교육권은 여학생, 장애학생, 생협 노동자와 같은 소수자들이 살아갈 길을 되려 흐뜨려놓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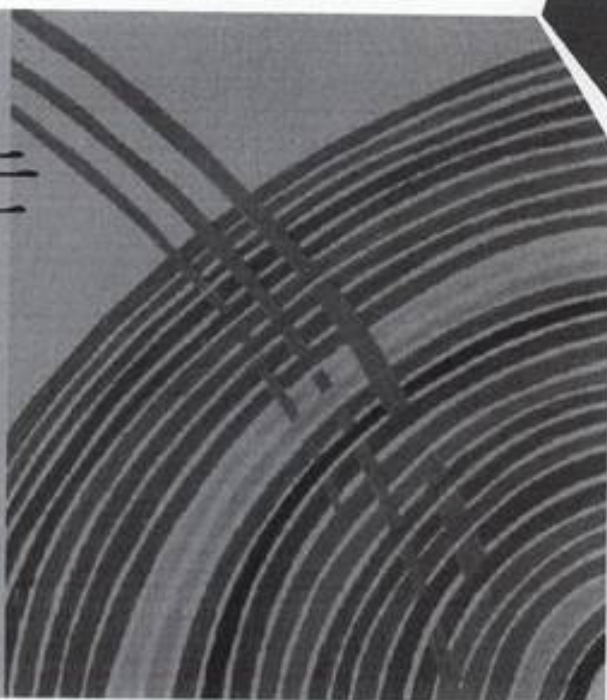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학생'이라는 단어로 지워진 '여학생', '장애학생', '자연', '노동자'의 구체적인 삶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관계에 주목하며,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하며, 그 속에서 어떤 정체성이 자연화되고 어떤 정체성은 사라지는지를 놓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학생이라는 범주의 보편성을 끌어내려 비장애자-이성애자-남성-소비자라는 특수한 자리에 위치시킨다. 연세대학교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개발, 행정, 예결산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연세대학교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폭로한다. 이것은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에 연루된 존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직시하려는 시도이며, 이에 대한 학교 당국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호통소리다.



결국 권리란 언제나 사회적 약자가 함께 살 권리를 뜻하는 말이어야 하며, 전 세계는 이들이 발화하는 권리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제도와 정책과 개인의 무수한 교차망 속에 살게 된 바에야, 서로는 서로의 고통으로부터 깔끔하게 발 뺄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 상대를 지우거나 착취하지 않는 관계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다른 위치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무구한 삶들이 공존하는 장으로 열어지기를 나는 끝까지 희망한다.

불안을 덮기 위한 폭력, 호모포비아는 있어선 안된다



최근 조선일보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동성애 혐오 광고가 실렸다. 경악과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다. 드라마를 본 남성은 게이가 되고 그러면 AIDS에 걸리고 그러면 죽는다니,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내가 우스워질 정도로 무식하고 실소마져 나오는 논리다. 하지만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러한 악의적인 혐오와 비난을 위해 누군가가 엄청난 돈과 여력을 들여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저질스런 동성애 혐오 발언이 일간지에 공공연하게 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비단 광고를 실었던 특정집단의 일이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타자화는 전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일상 속에서 누군가 이성애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설사 그 행동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행동에 주목하고 그에 강박적으로 대응한다. (“게이 같아!”) 누군가의 걸모습이 기존에 설정된 두 개의 범주-남성, 여성-에 따르는 규범에 딱 들어맞지 않을 때면 어떻게 해서든 그 성별을 확정짓고 나서야 안심

한다. (“남자야 여자야? 아 여자 맞구나.”) 이러한 타자화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와 맞닿아 있다. 기존의 이성애 젠더 범주(이성애자 여성/이성애자 남성)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는 누군가는 그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실제로 무수한 폭력에 직면한다. 동성애는 ‘질병’이므로 보듬어 안아 치료하면 ‘정상’이 될 수 있다는니 그것은 ‘죄악’이므로 ‘회개’해야 한다는 말부터, 집단 내에서 혐오, 괴롭힘이나 집단으로부터의 배제, AIDS에 걸려 죽을거라는 저주까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필연적으로 이러한 폭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위협하는 것까지.

어째서 이 사회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성애 성별규범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해 이다지도 강박적으로 반응하고 혐오하는가. 어째서 그 규범에 포섭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한 폭력이 전 사회와 일상에서 용인, 조장되고 심지어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이에 대해서까지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가. 그 혐오와 폭력은 편견과 악의로 가득차 있건만 그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말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참을 수 없음, 혐오, 두려움은 이 세상에 단 두 개의 확고한 이성애 젠더(남성을 사랑하는 여성,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만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이들은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 혹은 여자는 이성의 상대를 찾아 헤매고, 짝을 만난 이들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믿음 말이다.

그 믿음이 허구라는 것은 여러 지점에서 드러난다. 생물학적 분류에 따라 지정받은 성별과 그 성별에 부과되는 성애가 '자연스럽고' '신의 섭리'이며 '절대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이'가 반드시 이성애 젠더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성애젠더규범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조차도 자신이 그 규범에 맞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남성/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이상향을 쫓아 자신을 갈고닦아야 한다는 것을 그 이들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허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견고하다면, 다시 말해 이성애 성별규범의 기반이 확고하다면 어쩌서 성소수자에 대해 그다지도 참을 수 없어하며 그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비아(phobia)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성애젠더 정체성의 정상성, 혹은 절대성이 아니다. 이성애자로 태어난 '나'는 순도 100%의 이성애자이며 그것이 '정상'이므로 그것으로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그다지도' 혐오하는 것인가? 하지만 드라마 하나를 봤다고 아들이 게이가 될까봐 불안해하는 이들을 보고 있다면, 자신감에 차있는 정상성이 느껴지기보다 그 불안과 강박이 느껴진다. 성소수자를 '혐오해야' 한다는 강박 말이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포비아는 어쩌면 이성애정체성이 담고 있는 가정, '이성애 여성/남성 정체성은 날때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가정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그 취약함을 정상성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성소수자라는 타자를 만들고 그에 대해 불안과 혐오를 쏟아내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불안, 공포, 혐오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포비아(Phobia)라는 단어는 절묘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포비아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 불안을 혐오로

표출하는 것이다.

2010년 4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동성애혐오집단들은 일간지에 동성애혐오조장 광고를 싣고 법무부 사이트를 테러하는 등 대대적으로 호모포비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0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법무부가 공고한 차별금지법안의 개략적인 내용 중 '성적지향' 항목이 차별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자, 일부 호모포비아집단을 중심으로 그 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 '동성애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동성애혐오행위를 자행하며 정치적 외압을 행사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차별금지대상 중 '성적 지향' 등을 삭제하였고, 이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했던 법안 스스로가 특정 차별을 묵인,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3년이 지난 올해, 그 때를 떠올리게 하는 동성애혐오 행위들이 되풀이되고 있고, 심지어 10월 29일엔 동성애혐오 집단들이 국회의원, 교수들과 함께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을 열기에 이르렀다. 차별금지를 반대한다는 제목부터 괴이한 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되는 상황은 성소수자에 대한 포비아의 현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 다른 이들의 삶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성소수자 포비아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삶에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법률, 제도, 일상 등 사회 전반에서 당연시되며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한 성소수자 포비아에 반대하고 그를 깨뜨리려는 움직임은 일상 속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혐오에 대해 성찰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항하는 것으로, 즉 구체적인 행위들로 가능하다. 성소수자 포비아가 작동하고 있는 곳은 다른 어딘가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이나 관계, 삶과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사회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성애젠더규범의 취약함을 폭로하고 그것이 휘감고 있는 '정상성'을 깨뜨리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혹은 모든 이가 단 두개의 이성애적 젠더로 구획되어 잘려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

성폭력 사건에서의 통념과 2차가해

성폭력 피해생존자¹⁾의 경험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 성폭력 사건에는 너무나도 많은 통념이 덧씌워져 있고 그로 인한 잘못된 해석들이 넘쳐나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면식이 없는 정신이상 남성 가해자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약하고 성적으로 무지한 여성에게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성기삽입을 시행했다'는 성폭력 각본 하의 사건만을 성폭력으로 인지한다. 그러다보니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74%가 아는 사람이며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현실은 가려진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남성다움이나 낭만으로 포장되는 문화에서 일상적인 성폭력은 끊임없이 은폐된다. 남자 주인공의 강제적인 스킨십은 '거친 로맨스'로 부각되고 수많은 대중매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수많은 포르노물의 주제가 강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며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러한 통념들은 치유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2차 가해들이 쏟아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2차 가해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제도적 미비에 기반을 둔 가해 행위를 말한다.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여타 범죄 사건들과는 다르게 이 사건이 '진짜' 성폭력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은 성폭력 사건이 각본에 들어맞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각본에 들어맞는다면 이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 되지만 만약 사건이 각본에 들어맞지 않으면 피해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쏟아지게 된다.²⁾ 2차 가해를 성폭력에 준하는 가해로 명명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해자의 시각으로 성폭력 사건을 읽어내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언급했던 성폭력 사건의 내용에 관한 각본과 함께, 피해생존자의 조건에 관한 각본 또한 존재한다. 이 각본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신체적으로 약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생존 여성으로 상정한다. 만약 사건의 내용이 성폭력 각본에 들어맞을지라도 피해생존자가 각본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피해생존자의 '행실'에 대한 2차 가해가 강력하게 행해진다. 피해생존자가 '유혹'하는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고 하거나, 피해생존자가 최후까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서 성폭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의 시각에서 읽어내는 관점에서 더욱 공고하기 때문에, 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성폭력 각본에 입각하여 성폭력 사건을 읽어내는 것은 수많은 2차 가해를 불러온다. 피해생존자에 대한 일말의 이해 없이 무차별적이고 성인지적 관점이 전무한 형태를 띠는 2차 가해는 피해생존자의 치유를 방해하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피해생존 경험과 치유 방법 모색하기

사회에는 성폭력에 대한 고정된 각본이 존재하지만, 모든 성폭력 사건이 그 각본에 들어맞지 않듯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생존자들이 느끼는 면면 또한 똑같지 않다. 또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의미나 느낌들도 끊임없이 변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이 어느 때에는 매우 강렬한 인식을 가져오는 지점이 될 수도 있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던 다른 경험이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듯 피해생존자에게 있어 성폭력 피해생존 경험으로 인한 느낌이나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가변적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특정한 사건이 가져오는 촉발 때문에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접근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낮게 하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치유 방법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면 피해 경험의 치유가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생존자 개개인이 원하는 치유의 방향 또한 여러 방향일 수 있고, 이제는 다 끝났으며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유의 갈피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방법이 5지선다형처럼 단순하게 나누어지지도 않지만 치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피해생존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에서부터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차근

1)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의 맥락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겠다는 생존, 즉 삶과 존재의 맥락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살아 있는 피해생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이를테면, '원래 다들 그런 건데? 왜 그래?' '그건 네 잘못이지. 네가 초래한 거야.' '하루 일도 없었던 거야. 그냥 있어.' '한번뿐이니까 성폭력이 아니야.' '네가 침묵한 건 사실상 동의한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단니까?'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 주면 되겠니?'

· **참고 관찰** 하고 자기 자신이 느끼는 데 대해 혼란스러워하기 보다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맞는 것인지, 내가 화가 나는 게 맞는 것인지, 잠이 오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판단하기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감정 선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건을 겪은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건을 겪은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사건 자체를 직시하는 데에 도전할 수 있다. 여기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건을 직시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을 직시하는 것은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계속해서 직시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불편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공포심을 극복한 용기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피해생존 경험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으로부터 피해생존자는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해생존자는 성폭력적 사건에 대한 물이해로 가득 찬 이 사회를 비웃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이어질 피해생존자의 삶의 시간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치유를 위한 제안

-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 피해상황을 겪던 나 자신의 힘과 용기를 칭찬하기
- 내가 듣고 싶은 따뜻한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요구하기
- 떠오르는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기. 떠나보내고 싶은 감정이라면 찢거나 태워보기
- 나의 경험에 공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 치유에 도움이 되는 상담이나 교육,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여행, 음악듣기, 산책 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자주 하기
- 내가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나의 성인식을 돌아보기
- 나의 성에 대한 역사 쓰기
-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써보고, 전달해보기
- 편견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주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고, 전달해보기
- 성폭력피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는데 기여하기
- 성폭력피해 경험에 공감하는 여성들과 연대하기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sisters.or.kr>)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재구성하기

일상의공기속, 장애와 비장애중심성을 성찰하면서



어느 저명한 노교수가 말했다. 자신의 딸이 곧 시력을 잃게 될 것이란 의사의 전고를 듣고 깊은 절망에 빠져 많은 밤을 애통해했노라고. 딸이 세상의 온갖 빛깔을 인지하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나 무참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세상 식자층에 속하는 그는 미리로는 장애가 부끄럽거나/숨겨야되거나/돌린 것이 아니라 하는 여타 구호들을 버렸속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 된 딸의 입장에 서서 현실을 그려보았을 때, 타자였던 장애인의 삶이 그의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제서야 이 세계에서 장애를 끌어안고 사는 것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고 많은 차별을 당하며 여러 가능성에서 배제되어가는 과정인지 비로소 전절하게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장애 '정상'인을 상징하여 짜여진 시/공간 구조 속에서 소위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런 까닭인지 '비정상인'들의 몸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장애인구가 세계인구의 10%가량 달할 것이라는 UN의 추정이 무색하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백양로, 강의실, 동아리방, 중앙도서관으로 가 살펴보자. 장애인의 몸이 이미 사라져버린 주변엔 온통 '정상인'들 뿐이다. 우리들/당신들/이들의 착각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타자화는 무지막지게 이루어진다. 장애는 희화화 혹은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그 외의 관계맺음에 대해선 일절 고민하지 않는다. "너 청각 장애있다? 난 참 귀도 잘 안들리고 눈도 어둡고...어떻게 살래?" "너 (장)에서 아니냐?" "아, 게 말 더듬거리 는 거 청신지제같아! 그게 뭐냐?" 스스로 교양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인세대. 이 공간, 명문 사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거친 언어들이 일상으로 속사포처럼 쏟아진다. 장애가 열등함의 대명사로, 비속어로 쓰이는 상황 자체가 '정상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재화된 비장애중심성을 바탕으로 저지르는 폭력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단순한 무지나 도덕적 마비에서 이러한 잔인한 말들이 발화되고 또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단편적이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았고,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윤리적 감수성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곧 장애를 비하하는 농담을 사석에서 별 생각없이 던지는 사람도 장애 관련 논제가 걸린 '공식' 선상에서는 돌변하여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야한다는 '착한' 견해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장애를 타자화하고 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남의 문제"라고 단정 짓는 무심함에서 비롯된다. 제도권 교육에서는 별 고민없이, 아주 단순명쾌하게 말한다. 사실 장애인도 우리의 '동등한' 친구이며, 친구를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장애에 대한 회화화는 폭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성장이 부족한 교육이 전파하는 장애에 대한 '연민' 또한 그리 추켜올릴 만한 것은 못된다. 이 역시 외부의 열등한 타자를 보는 시선이다. 타자에 대한 연민과 연민이 만나 나올 수 있는 산물은 고작해야 시혜이고, 이런 인식에서 나온 실천적 행동은 잠시 그들의 주머니에 몇 톨 보태주는 것뿐이다. 장애인의 고통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ARS 후원을 위해 전화를 걸거나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저체 장애인의 손에 잔돈을 쥐어주는 선생들이 분명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결국엔 차별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 시혜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장애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장애와의 다른 관계맺음의 가능성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란 과연 불변의 절대적 특징으로 '정상적 일반인'인 자신과 상관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와 부대끼면서 장애라고 명명될 수 있는 불편함이 삶 속에서 정녕 '단 한 순간도' 없었는지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장애가 기실 얼마나 허구적인지 마주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에 장애특별입학으로 들어온 장애학생 000명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장애등록인구 약 242만 명²⁾ 등의 숫자는 장애인들이 엄밀히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장애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측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 3개 영역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지만,³⁾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그러한 틀로 포착하기에 굉장히 박탈 정도로 우리 인의 '장애'는 무수하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신장이나 심장, 호흡기, 간, 간질 장애를 포함한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한 학내 도처에 있다. 우울장애나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등 감정조절 및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장애의 범주는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하다. 통상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영구적이고 불변한 신체적 특징으로 생각하지만, 팔이 부러져 기브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는 시기에 따라 가변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장애란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여기서 또 고려할 것이 있다. 다름아닌 장애를 규정하는데 있어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이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통념을 뒤엎고 장애에 대한 폭넓고 새로운 합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란 저한 상황과 조건에 의해 유동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개념으로, 장애란 절대적인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산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정된 <국제 장애 정의안>에서 손발, 활동, 참여, 환경이라는 네 가지 차원이 장애를 규정하는 데 작용한다고 명시했듯이, 장애는 사실상 특정 활동과 참여의 제한, 환경의 제약 등에 부딪히면서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장애화'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¹⁾ 정리하면, 장애는 일반적인 통념보다 굉장히 폭넓고 유동적인 개념인 까닭에, 이러한 현실적 지형에서 정상인/비정상인, 일반인/특수인, 비장애인/장애인의 경계는 너무나 알량해져버린다.

1996년 장애학생들이 특례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한 이래로 학교 측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와 캠페인을 열었으며 장애학생들에게도우미 학생을 연결해주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학교의 '일반적인' 구성원을 비장애 학생 및 교수, 교직원 등으로 상정하고 공간이 짜여져 있는 까닭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생긴 위당관 카페테리아의 계단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없다는 학생의 목소리,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학술 논문들이 PDF파일 형식으로 되어있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 장애 학생의 목소리, 민지 쌓인 강의실이 기관지염을 악화시킨다는 학생의 목소리... 이들은 비장애중심성이 학내 공간에 수십년 간 축적되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국가에 의해서 몇 등급으로 편성되어 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개인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인 수 있다. 획일적인 정상성을 강요하는 학내 공간은 다양한 몸들을 포용하지도 감당해내지도 못한다.

제 23회 총학생회 선본 <Questioning>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약자일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장애' 또한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장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환경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다. 우리들/당신들/이들이 공기 속에 흐르는 비장애중심성을 고찰하고 타파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문제이면서도 다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모든 지형에 서서 모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지난한 길을 자처하는 것은 '열등한 자'를 상정하고 배무는 시혜성 접근은 부분적 패질만을 일삼는 장책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 기만일 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Questioning>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계를 구조적 측면에서 통찰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실 속 관계를 외면하지 않고, 그 섬세한 결을 그리어내고서 여성주의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끌어올리는 데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 다양한 몸이 숨통을 트고 어울리게 될 수 있기를 꿈꾼다.

1) 보건복지가족부 등락, 장애인연령(2009년 12월말 기준).

2)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제도,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3)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김상업 외, 삼인 출판사, 2002, 262쪽.

4)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제도,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나요? 당신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대가가 있는 노동? 몸을 움직이는 것?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은 모두 '일' 인가요? 학생으로서 하고 있는 공부도 '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일'이라는 건 결국 우리네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련의 행위가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좁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일로 인정받고, 또 그 중에서도 많은 돈을 벌고 안정적인 일이면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회는 물론 우리 몸 안의 사회화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도 '너를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일자리를 어서 잡아!'라는 메시지를 항상 들으며 살아갑니다. 백양로를 수놓은 수많은 기업 플랑들이 그렇고, 취업게시판의 포스터들이 그렇습니다. 허리

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여성 승무원 그림이 그려진 대기업의 포스터에는 "주의: 극심한 감정노동 착취는 일하는 이의 허리와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주의 문구 대신에 "아름다운 기업"과 같은 달콤한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패기가 넘쳐 보이는 젊은 남녀가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채용설명회 포스터를 보고 있노라면, '저 회사에 들어가면 덜 불안하고 더 행복해질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합니다. 일단 돈도 벌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떤 수업에서, 한 학생이 우리 세대는 '계속 준비만 하는 세대'라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겨우 대학에 들어왔더니 이젠 취업을 준비합니다. 지금 내 옆의 누군가는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로스쿨 진학을 준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비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CPA(공인회계사 시험)를, 어떤 이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합니다.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준비, 준비, 준비... 나의, 당신의, 사람들의 준비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렇지만 말예요, 이대로 질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내 눈 앞에 보이는 건 이렇게 적은 수의 메뉴얼뿐일까요? 정말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는 이 정도 길이 다인 걸까요? '젊음을 담보로 걸고 열심히 또 열심히 노력하면 (입사시험에/고시에/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일단 뭔가에 합격하고 나서 거기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도 늦지 않아.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괜찮을까? 고옹.'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전 곧잘 머리가 복잡해지곤 합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졸업하기 전에 뭔가 다른 일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인턴 프로그램은 많지만 대부분 기업 인턴 프로그램이고, 소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는 인턴만 해보면서 지치고 싶지 않습니다. 돈 중심의 시장경

제에서 하는 인턴 말고, 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판을 짜려고 일하는 단체에서는 인턴 같은 거 해볼 수 없나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이중노동의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사회도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않아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는 선배 언니들의 이야기가 떼무덤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부장적인 회사에서의 인턴 말고, 나이 많은 여성들이 서로 보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며 꾸려나가는 여성주의 공동체에서의 인턴은 없나요?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무시, 비가시화가 대수롭지 않아서 내가 중국에는 상처받으며 건물 옥상에서 엉엉 울게 될 그런 무서운 곳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두 존중되는 일터에서 인턴해볼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러한 다른 '일' 경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경험들을 해봐야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또 다른 면모들에 대해, 그리고 돈 이외에 일과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면

예전에 들었던 어떤 수업에서, 한 학생이 우리 세대는 '계속 준비만 하는 세대'라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겨우 대학에 들어왔더니 이젠 취업을 준비합니다. 지금 내 옆의 누군가는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CPA(공인회계사 시험)를, 어떤 이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합니다.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준비, 준비, 준비... 나의, 당신의, 사람들의 준비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나는 좀 더 당당히 '졸업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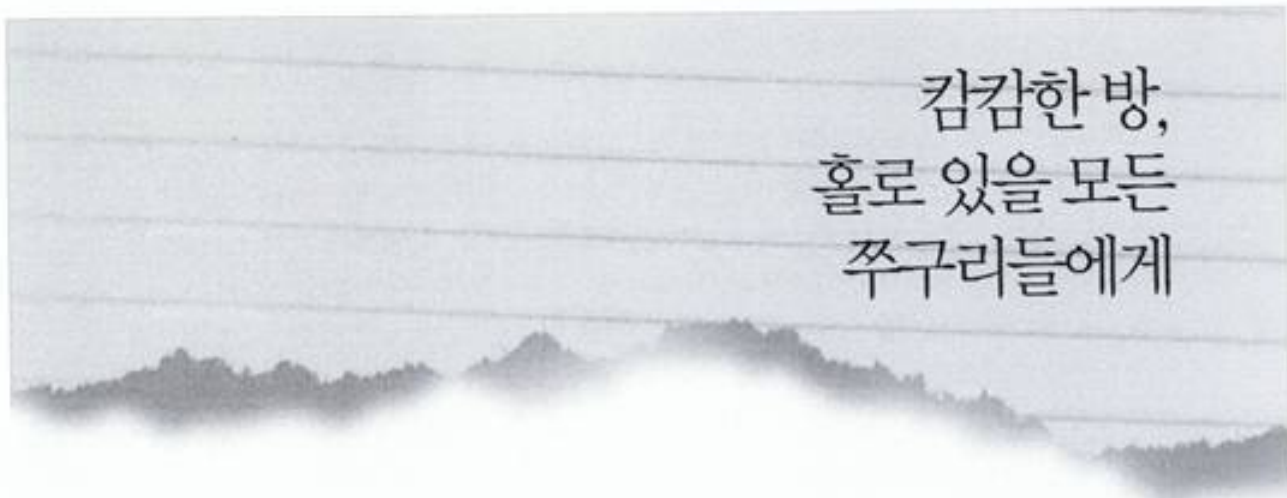
저는 지난 여름, 한 대안문화센터가 기획한 워크캠프를 통해서 아주 짧게나마 막달레나 공동체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막달레나 공동체는 나눔, 존중, 상생을 모토로 성매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쉼터, 현장지원센터,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 국수집 동고리, 중·장년 여성을 위한 장기쉼터 목적으로 지은 강화도 보듬네, 용감한 여성 연구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가 인간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역사와 권리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매매경험자들의 삶을 함께 복잡복잡 살아내며 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대항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공동체 대표님께서 실습생으로 간 저와 제 친구를 위해 알게 모르게 배려를 많이 해주신 덕에 공동체 내의 다양한 현장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이런 단체의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가면을 겹겹이 쓰지 않고 일해도 괜찮은 일터, 일상과 밥상을 나누며 가족이 되는 사람들, 인연과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멋진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 인턴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무척 서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서툰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인연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련의 행위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치와 의미란 항상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인턴은 모두 우리네 인생 공부와 일 경험의 끝이 아닌 시작이겠죠?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아직도 "졸업 후에 뭐하

지?" 라는 고민을 여전히 자주 합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인턴 경험을 해보기 이전보다는 훨씬 덜 막연해진 것 같아요. 사회의 지배 권력이 '틈새' 혹은 '주변' 이라고 사소하게 여기며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씩씩하게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외치며 일하고 있는 곳의 일상에 잠시나마 깎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대생 커리어 센터가 주선해주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 선배와의 만남으로는 풀 수 없었던 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세대 캠퍼스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복잡복잡 틈새와 일하는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부장적인 일터나 성소수자 혐오로 가득 찬 일터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와 돌봄의 윤리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비빌 언덕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일터는 어떤 모습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해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당신과 제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가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온 '일'의 경제 중심적 고정관념을 우리네 삶 속에서 깨면서 살아갈 에너지를 나눌 것입니다. 일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생산물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고 살아내는 세상 전반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봐야하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은 다양한 "조금 다른 일 경험해보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곧 일'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토대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와 일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삶의 에너지를 되찾고 상긋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웃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웃는 당신의 얼굴을 보며 예쁘다고 말해주고도 싶어요.

_유경



캄캄한 방, 홀로 있을 모든 쭉구리들에게

서울에 홀로 올라온지도 어언 몇 년이 흘러 이제 꽤 능숙한 자취생이 된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옮겨 다녔어. 기숙사, 하숙집, 반 지하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투룸, 오피스텔로 이사하려던 즈음에는 친하다고 믿어왔던 친구들이 너 좀 무지하게 징징거리는 것 같다며 그만 좀 징징대라는 편지를 투옥 던지더라. 한 녀석이 시작하니깐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던 날 향한 그 쿨하디 쿨한 충고들. 울컥하고 서러워서 내가 정녕 그렇게 징징대는 걸까,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유독 유난을 떠는 걸까 자문을 해봤는데, 뭐 일단 내가 좀 잘 쪼짱거리고 예민한 건 맞는 거 같긴 해. 근데 내가 편장을 들을 만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터무니없이 마냥 징징대느라 이사를 다닌 건 아니야. 난 이해를 받고 싶고 그래서 변명을 해보려고 해.

기숙사에서 난 꽤 잘 지냈어. 등 따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취미이자 특기였던 잉여롭고 비루한 새내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꽤 지낼 만 했어. 이듬해 기숙사 추천에서 떨어지고 처음으로 홀로 살게 된 곳이 하숙집이었거든. 여기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 밥을 먹으러 가면 하숙집 아주머니랑 다른 하숙생들을 마주치잖아. 그런데 내가 그 때 한창 사람을 뽕뽕그려서 무서워했거든. 편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불편해서 누구든 피하고 싶어 했는데 낯선 사람들 속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하숙집이 나한테는 벅찼어. 더 숨어들어야 비로소 편안해질 것 같았고 나는 모든 생활을 홀로 할 수 있는 자취가 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원룸으로 옮겼어.

반 지하이긴 한데 창문은 꽤나 지상으로 나있는 애매한 집이었어. 유난 떨며 옮긴 그 원룸에서는 잘 살았던 거 같아. 반 지하라 그런지 건물이 허름해서 그런지 거대 거미랑 거대 바퀴벌레와 같은 각종 벌레들을 자주 조우했지만 혼자 잘 처리하고 살림도 잘하며 그냥 저냥 잘 지냈어. 살림이 은근 재밌더라. 그렇게 잘 지냈는데 장마가 다가오고 있던 어느 초여름 날 아침, 침대 밑에 물이 흥건한 거야. 여기서 물이 더 새면 못 살겠다 싶어서 급하게 방을 땀어. 드디어 성공적으로 숨어들 곳을 찾았는데 나와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지.

급히 나와서 갈 곳을 못 찾은 나는 신촌 한가운데 고시원에 들어갔어. 고시원은 일단 진짜 좁고 그 안의 모든 것들도 작아. 근데 뭐 작아도 그냥 지낼만하다 생각했는데 더 힘든 건 밖으로 난 창문이 없는 거. 중앙 냉방이라 밤이건 낮이건 차갑고 무거운 에어컨 바람이 머리 위에서 쏟아져 불어와, 웅~하는 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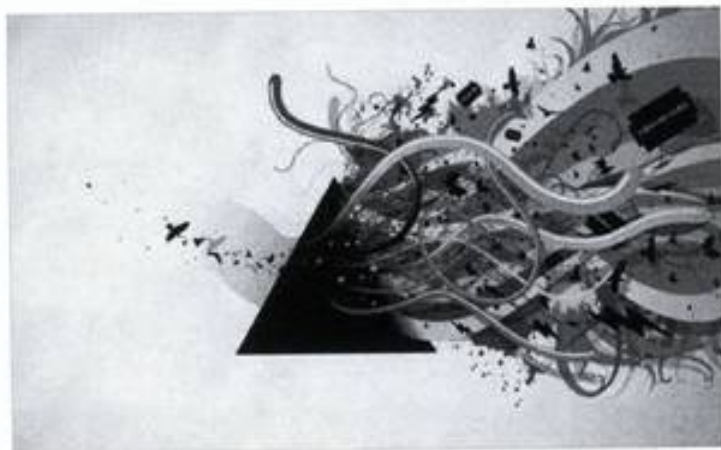
빈 소리랑 같이. 그러니까 엄청 밀폐된 공간이야. 거기 살 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 햇빛이 들어오질 않으니 시간관념이 없어져.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밤에는 불을 꺼도 작은 창을 통해서 복도 불빛이 들어와 내 얼굴을 비추고 에어컨에서 쏟아지는 바람은 탁했어. 잠을 많이 자도 늘 머리가 멍했는데 그 서늘하고 멍한 기분이 이 방에 대한 첫인상이었어.

아니 고시원에서 잘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징징대느냐고? 쯔-금만 더 들어보게. 사실 방 자체나 열악한 일조량이나 그런 것들보다 진짜 문제는 내가 마음속에 거대 주구리 한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거, 요거 같아. 이 '주구리'라는 건 일종의 기생충인데 사람의 자괴감을 주식으로 삼고 나태함을 간식 삼아 자아를 열심히 갉아먹는 놈이야. 웅용 문구로는 '나 요즘 주구리가 되었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 때의 나는 주구리와 제대로 혼연일체가 된 상태였던 거 같아. 그런 나한테는 주어진 일을 해낼 만큼의 힘이 없었고 그래서 일터에서 민폐를 끼칠 때가 많았어. 그럴수록 나는 더 쭈그러들었고 자책도 하고 합리화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냈어.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나중에는 방에 들어오면 일단 노트북을 옆으로 세우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안하고 인터넷만 하게 되는 거야.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힘이 들었고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서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걸 떠먹는 걸로 하루에 두 끼를 때웠어. 그러다 하루는 과외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고 핑 도는 거야. 라면이 몸에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없던 빈혈을 만들만큼 영양 균형이 안 좋은걸 그 때 알았지.

그런데 하숙 때도 그랬지만 몸이 아픈 거 보다 더 힘든 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한 나를 알아챘을까 무서워 나를 숨기는 거였어. 약속에 나갈 때나 일을 하러 갈 때나 학교에 갈 때는 그 방에서 나만 쏙 빠져 나오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별 일없이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일출 쓰레기통에 내려가는 것도 귀찮아 쌓아둔 쓰레기 봉다리들이 방바닥을 어떻게 덮고 있는지, 그 봉자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발을 디디고 옷을 찾아 주워 입는지, 쌓아놓은 그릇들에서 어떤 악취가 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방은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그 때는 내가 어딜 가든 내 속에 그 방이 있는 기분이었어. 부패한 방과 그 방을 닮은 나를 숨기고 싶었고 그럴수록 나는 밝고 쾌활한 사람 코스프레를 철저히 해냈고 누구에게 어떤 것도 열어 보이지 않았어. 숨기고 숨어드는 내가 비겁하다 생각했고 송두리째 부정했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며 더 감감히 그 방으로 숨어들었어.

대체 네 주구리 시절의 처참하고 신파스러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느냐며 변명이나 어서 내놓으라고 다시 물을 수도 있는 당신을 위해 요약 정리를 하자면, 너희들이 팔짱을 꼬며 너 대체 왜 그러냐고 했던 그 때 나는 몰래 몰래 저렇게 힘들었다고, 나는 그 때 백프로 액기스 고농축 주구리였고 아마 난 지금도 아니 원래가 조금은 저런 거 같다고, 징징대더라도 홀로 견딜만큼 견딘 다음에 내어놓은 일말의 투정에 불과하다고, 아이들아, 이제 알간?

이 글을 주구장창 독자를 상징하고 좀 들어보오-하며 써오긴 했는데 결국 써놓고 보니 내 자신에게 던지는 다짐이자 충고인거 같아. 한 발자국씩 방 밖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긴 한데 여전히 겁이 많아. 나, 아직도 한번씩 마냥 물어박혀서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방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것이지. 그런데도 내가 계속 걸어 나오려 노력하고 있는 건 네가 뒷걸음치대도 끝까지 널 쫓아가겠



다고 선포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 같어. 어떻게 보면 유난스러워 귀찮을 수도 있는 내 예민함의 역사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인 거 같어.

쭈구리들아, 한 사람의 쭈구리로서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 같어. 왜 수업에 들어오지 않냐는 전화에 아이그 내가 또 늦잠을 잤네 라는 애씨 가공한 짓궂고도 밝은 대답으로 우리의 긴 긴 밤을 새게 만든 그 악몽 같은 우울과 자괴를 덮지는 더 이상 말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 울지도 말자. 나도 소심하게 걷는 중이라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방을 열어 보여주자. 일단 문을 열어 방이 비참하든, 더럽든, 추하든 보여주면 너 이런 불쌍한 녀석 몸보신해야 되겠다며 따끈 따끈한 삼계탕을 사주고 자기가 먹던 철분제도 손에 쥐어주고 돌아서는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니깐.

나는 참 나약한 거 같어. 이전 아직도 인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두운 방에 넣어 두고 싶은 내 모습이야. 세상은 학교는 사회는 모임은 내게 여러 가지로 여전히 벽차. 그래도 나는 말을 하려고 해. 나처럼 징징대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힘을 내려고 해. 방 안에서 나는 점에 불과했고 그래서 무기력했어. 이제는 나와 다르면서도 비슷한 여러 점들을 꽤나 만났고 그래서 내 일상을 외칠 힘이 생긴 거 같어. 짹짹한 서울에서 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알아본다면 사는 게 조금 덜 짹짹하지 않을까. 동이 틀 때까지 우리를 움직여오는 수많은 상념을 함께 삭힐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같이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왠지 불안해서 밤이면 김치찌개를 입에 털어 넣고 있을 너. 과제가 감당이 안 돼서 밤새 인터넷을 하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너. 사람이 고픈데 방이나 마음이 어지러워 초대하기는 두려운 너. 달밤에 조강이 하고 싶은데 인적 없는 골목이 무서워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너. 조금만 더 예뻐지면 좋겠는데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어보는 너. 너희들과 나는 이렇게 각자 찌질하게 이 밤을 보내지만 그래도 너와 나는 존재하고 있어.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비슷하게 함께 살아있어.

- 룸메가 있어 그러니깐 나는 복 터진 쭈구리. 치가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Questioning

23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경은 · 화정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Questioning 선본에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